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 문제에 대한 시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중심으로—

오 현 아*

국문초록

목적 : 이 논문에서는 ‘문법 용어의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할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이를 위해 2장에서 사범대 국어교육과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인식 양상을 확인해 보고, 3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 6종에서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 : 그 결과, 2장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의 개념 인식 양상 특성을 밝히고 3장에서는 관련 문법 교과서 기술 내용의 한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 :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들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개별 문법 용어별로 학습자들의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문법 교육, 학교 문법, 문법 용어, 개념어, 투명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성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ttp://dx.doi.org/10.15734/koed..118.201903.73>

1. 들어가며 : 왜 ‘통사적 합성어’인가?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품사에 따라 합성명사, 합성형용사, 합성동사, 합성부사, 합성관형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고영근·구본관, 2018 : 224).

그렇다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은 무엇인가? 용어상에 등장하는 통사적 합성어의 ‘통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의 정의에 대해 학습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어 차원에서 합성어를 분류할 때 왜 ‘통사성’이 등장하는 것인지 학습자들은 과연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에 대해 개념 설명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법 교과서가 언어 단위별로 구획되어 있는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오현아, 2016a, 2016b, 2016c, 2017 ; 오현아·조진수, 2016)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문법 용어의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할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법 용어의 투명도’ 문제를 문법 용어 일반에 확장시켜 논의를 넓혀가는 시론으로서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기서 ‘문법 용어의 투명도’란 ‘투명도’ 고유의 정의¹⁾처럼 ‘학습자가

1) ‘의미 투명도(transparency)’란 일반적으로 “파생어나 합성어 등 복합어의 형성 과정에서 그 구성 요소(components)의 본래적인 의미가 복합어 형성 후에도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정남, 2007 : 2). 의미 투명도 관련 기존 논의는 크게 1) 국어학적

문법 용어를 접하였을 때, 그 문법 용어의 개념이 비교적 미루어 짐작 가능하여 수월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문법 용어의 투명도가 높다'는 것은 '학습자가 그 문법 용어의 개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수월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경우'이며, '문법 용어의 투명도가 낮다'는 것은 '학습자가 그 문법 용어의 개념을 미루어 짐작하기

논의 논의, 2) 재외동포 언어 관련 논의, 3) 국어교육적 논의, 4) 타 교과교육적 논의, 5) 외국어교육적 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해당하는 세부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가능하다.

1) 국어학적 논의

(1) 단어 일반의 논의 : 김정남(2007), 신희삼(2015)

(2) 특정 형태부·어휘부 한정 논의 : 관용 표현(문금현, 1996; 김서형, 2013), 복합명사(이태연, 2004), 고유명(박재연, 2012)

2) 재외동포 언어 관련 논의 : 장광균(2013), 려춘연(2011)

3) 국어교육적 논의

(1) 한자어 교육 관련 논의 : 김왕규(2004), 민현식(2005a, 2005b, 2006a, 2006b), 노명희(2008), 배성봉·이광오·박혜원(2012), 배성봉·이광오·박태진(2016), 이진범(2017)

(2) 학습부진아 교육 관련 논의 : 현혜숙·김영태·임동선(2011), 김순호·정경희(2015), 신후남(2015), 송현주·김재옥(2016), 차은영·김재옥(2017)

(3) 경도 지적 장애 성인 교육 관련 논의 : 오진영(2014)

4) 타 교과교육적 논의 : 한문교육(허철, 2016)

5) 외국어교육적 논의

(1) 한국어교육

가. 한자어 교육 관련 논의 : 강남옥·김상현(2019)

나. 관용 표현 교육 관련 논의 : 문금현(1998), 김현진(2015), 서경숙(2017), 박섧별(2018)

(2) 일본어교육 : 송영빈(2009)

(3) 중국어교육 : 이은화(2015)

이상의 선행 연구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단어 형태부 혹은 어휘부 차원에서 '어휘 간의 관계, 어휘 확장, 어휘 학습'의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어휘의미론의 성과를 기반으로 문법 교육 내 문법 용어 일반에 확장시켜 논의를 넓혀가고자 한다.

이는 모어 화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추출해내기 힘든 어휘 유형이 '한자어, 관용 표현'에 그치지 않으며, 교과 전문 용어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즉,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 용어로 그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 인식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국어 교과 전문 용어 혹은 개념어 일반, 국어 교과 내 개별 내용 영역인 화법, 독서, 작문, 작문, 문학 교육 전문 용어 혹은 개념어로까지 확장 가능한 문제의식임을 밝혀 둔다.

어렵고, 수월하게 개념화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 용어의 투명도'란 학습자의 문법 용어 개념 인식 양상에 따라 문법 용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높은 문법 용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이처럼 학습자의 용어 개념 인식 양상을 바탕으로 '문법 용어의 투명도'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문법 용어를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높은 문법 용어'와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에 대한 학습자의 깊이 있는 이해 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선웅(2012), 오현아(2017)와 궤를 같이 한다.

이선웅(2012 : 15-21)에서는 한국어 현대 문법론에서 사용하는 중요 개념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어 연구의 필요성을 1) 한국어 현대 문법론에서 사용하는 중요 개념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사전으로서의 역할, 2) 개념어에 대한 연구사 정리의 목적, 3) 정밀한 용어 비평을 통한 개념상의 오해와 용어 사용상의 혼란으로 인한 후행 문법론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비효율 경험의 지양 목적, 4)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여 한국어문법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개념들이나 지극히 연구자 특정한 개념까지도 다루는 부수적 효과를 들고 있다.

이선웅(2012)에서 연구자 집단의 한국어 현대 문법론의 중요 개념어들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오현아(2017)에서는 학습자의 문법 개념 인식 과정에서 깊이 있는 문법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자의 문법 개념화²⁾ 과정 기반 연구³⁾의 필

2) 오현아(2017)에서는 학습자의 개념 인식 양상을 기반으로 한 문법 교육 지식 체계 구조화를 위해 인지언어학 이론에 기반한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개념화(conceptualization)', '초점 조절(focal adjustment)' 용어를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개념화'는 '개념 화자의 의미 획득 과정'에 주목한 용어 선택이며, '개념 화자의 의미 획득 과정'에서 '문법 개념이나 용어', '언어 현상'에

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여 방안으로 1) ‘개별 문법 항목 혹은 용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능성 탐색 차원’에서 문법 용어 사전 구성 방안, 2) ‘문법 항목 혹은 개념들 간의 연계 가능성 탐색 차원’에서 개념 구조도의 제시 방안을 모색⁴⁾해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오현아(2017)에서 제안한 ‘개별 문법 항목 혹은 용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능성 탐색 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문법 용어 사전 구성을 위한 문법 용어에 대한 학습자의 깊이 있는 이해 가능성 탐색을 위한 구체적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의 투명도’ 문제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 용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사범대 국어교육과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사적

대해 개념 화자인 중등 예비 국어 교사가 어떻게 윤곽을 특정짓고 어느 정도 범위로 원근법을 조절해 대상을 개념화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관심사이며, 이러한 ‘대상에 대한 개념화 과정에서 개념 배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배열이 ‘문법 개념이나 용어’, ‘언어 현상’에 대한 개념 화자의 개념화 과정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방식의 구조화인가의 문제가 두 번째 관심사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첫 번째 관심사로 ‘문법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개념 화자가 어떻게 윤곽을 특정짓고, 어느 정도 범위로 원근법을 조절해 대상을 개념화하느냐(‘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중등 예비 교사의 개념화 인식 양상 부분인 2장이 이에 해당함)의 문제와 두 번째 관심사로 그 개념 배열이 개념 화자의 개념화 과정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방식의 구조화인가(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3장이 이에 해당함)의 문제를 함께 다룬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언어 현상’에 대해 개념 화자가 어떻게 윤곽을 특정짓고 어느 정도 범위로 원근법을 조절해 대상을 개념화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어휘 차원에서 남북한 외래어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의 차이를 동일 대상에 대한 남북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 혹은 인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언어 사용 주체의 ‘초점 조절’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한 박진희·민현식(2018)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 3) 학령기 학습자의 문법 개념화 과정 기반의 대단위 학습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한국어 문법 능력 진단 학습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는 오현아 외 5인(2018) 참조.
- 4) ‘주요 문법 개념 중심, 연쇄적 문법 교육 내용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현아(2016a) 참조. 특정 문법 지식에의 본격적인 적용 사례로는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주요 문법 개념을 중심으로 통사 구조 중심의 연쇄적 문법 교육 내용 제시 가능성을 탐색한 오현아(2016b) 참조.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인식 양상을 확인해 보고, 3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 6종에서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중등 예비 국어 교사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 용어의 개념 인식 양상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중등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범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국어교사 43명⁵⁾을 대상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개념 인식 기술지를 제공하여 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개념을 접한 경험의 유무, 2)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5) 2018학년도 1학기 S대 국어교육과 2학년생 대상의 <국어학교육론> 강좌에서 만난 중등 예비 국어 교사 43명은 연구자가 만난 가장 열정적인 학습자들이었다. 수업 시간 중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나 예문에 대한 설명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는 문법 개념들을 충동원해 해석한 예문들이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문법 개념에 의해 해석되고 범주화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의 문법적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연구자의 생각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관 개념의 예문을 들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자의 발언에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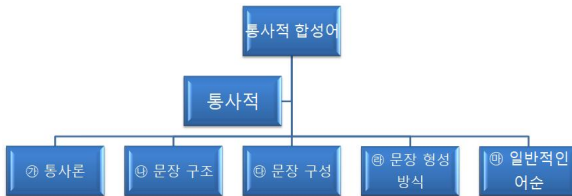
학습자의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할 것인지, 그들의 뛰어난 학업성취도가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형성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한 학기 내내 연구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동일한 강의 자료인데도 3시간 반이 훌쩍 넘도록 연구자에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43명의 학습자들과의 소통은 연구자로서, 교수자로서 행복한 만남인 동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적극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내적 자극이기도 했다. 이제는 3학년이 되었을 43명의 학습자들에게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소논문에 담아 전한다.

의 학습자 개념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개념을 접한 적이 있는 학습자는 전체 43명의 학습자 중 40명이었으며, 2)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 구성 양상은 모두 8가지 유형⁶⁾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8가지 유형은 다시 크게 1) ‘통사적’에 주목하여 생각하는 경우, 2) ‘문장의 규범성’에 주목하여 생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자세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2.1. ‘통사적’에 주목하여 생각하는 경우

‘통사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다시 1) ‘통사론’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2) ‘문장 구조, 문장 구성,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3) ‘일반적인 어순’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 ‘통사적 합성어’ 용어에서 ‘통사적’에 주목한 5가지 유형

그리고 ‘문장 구조, 문장 구성,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그 의미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시 1) ‘문장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2) ‘문장 구성’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3)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한

6) 이 유형은 연역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념 인식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류한 것을 논문의 흐름상 연역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밝혀 둔다.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은 앞서 기술한 ‘통사론’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먼저 이 두 유형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적’에 주목하여 그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앞의 유형이 ‘통사적’에 주목한 데 그친 데 반해 이 유형에서는 ‘통사적’의 의미 분석을 상세화하고 있다⁷⁾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용어 자체의 주목에 그치느냐, 용어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느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하위 유형들의 인식 양상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가? ㉠ 유형은 문장이나 단어 형성에 대한 분석적 관점의 용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 ㉢ 유형은 문장이나 단어 형성에 대한 생성적 관점의 용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인식 양상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1.1. ‘통사론’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통사론’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1]과 같다. 즉, 이 학습자들은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통사’와 관련이 있다고만 인식할 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 ㉡, ㉢ 학습자 모두 동어반복적인 정의 기술에 그칠 뿐, ‘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적’의 의미를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7) 이 유형은 오현아(2017 : 46-47)에서 문법 지식의 발산 과정에서 ‘특정 문법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주목’에서 그치느냐, ‘지각한 문법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해석 과정’으로 진입하느냐의 차이에 대한 기술 양상과 일치한다.

[표 1] '통사론'과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 통사론이랑 관련이 돼 있겠구나 | 통사론이랑 관련돼 있지 않거나 약간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
| ㉢ 문장에서 관계와 같음. ex) 돌아다니다. | 관계가 비통사적임 ex) 뉘푸르다 |
| “말이 되는” ‘통사’는 ‘통사론’에서 나온 말 같다. |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 “덮밥”이면 ‘덮은 밥’인지 ‘덮인 밥’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비통사적’이라 생각한다. |
| 통사는 문법 체계에서 문장 단위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 통사적이라는 것은 문장 단위 언어 현상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되돌아가다’의 경우 ‘영수는 놓고 온 준비물을 챙기러 오던 길을 되돌아서 집에 갔다’ ‘영수는 놓고 온 준비물을 챙기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와 같이 통사적으로 합성된다. ⁶ |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 단위의 자연스러운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비문에서 볼 수 있는 합성어로, ‘덮밥’ 등이 있다. |

2.1.2. ‘문장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문장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2]와 같다. 즉, 이 학습자들은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그 의미를 문장 구조와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그 문장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단계(㉦, 2.1.1.의 학습자들과 동일 수준)와 이를 구체화해 설명하는 단계(㉧)로 다시 구분⁸⁾된다. ㉧ 단계의 학습자들은 문장 구조 내에서 결합 가능한 유형들에 대해 예를 들어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장 구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단계의 학습자들의 인식 수준과는 차별화된다.

8) 이 유형은 오현아(2017 : 46-47)에서 문법 지식의 발산 과정에서 ‘지각한 문법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해석 과정’으로 진입했으나, ‘필수적인 세부 하위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 대한 기술 양상과 일치한다.

[표 2] '문장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가) | 문장에서 봤을 때 구조가 성립 가능 ² | 문장에서 봤을 때 구조 성립 불가능 |
| | 문장 구조상 큰 오류 없이 둘 이상 구성 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에 어긋나지 않게 결합한 합성어 ³ | 우리말의 문장구조 배열이 어긋나게 결합한 것 |
| | 한국어 문장에서 흔히 보이는 문장 구조, 성분을 가진 일반적인 통사구조에 들어맞는 | 한국어 문장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문장 구조(틀린 문장 구조),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맞지 않는 |
| 나) | 통사적 원칙에 맞게 합성된 합성어 조사가 생략되어 합성된 단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조사는 생략 가능하기에) 명사+명사의 경우도 통사적 합성어이다. 관형사+명사도 통사적 합성어이다. | 통사적 원칙과 다르게 합성된 합성어 어미는 생략될 수 없으므로 어미가 생략된 단어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부사+명사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 |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관계가 국어문법의 통사적 규칙을 따르는 경우 ex) 새싹(관형사+명사) |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관계가 국어문법의 통사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ex) 높푸르다(높고푸르다가 되어야 함, 동사와 동사는 연결 어미 없이 결합 불가능) |
| | 문장 구조에 맞는 문장을 만든다는, 문법 규칙에 부합하는, 문법적인, 이를테면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는 먹을거리, 마실거리처럼. |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문법적인, 이를테면 어미 없이 어간이 바로 다른 것과 결합하는 먹거리, 뉘뉘처럼. |
| | 일반 국어 생활에서 문장의 구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어. | 일반 국어 생활의 문장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어. ex)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목적어가 서술어보다 나중에 나오는 경우 등등 |
| | 일반적인 단어?문장? 형성 방법을 따랐다는 것. | 일반적인 단어?문장?:? 형성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예) 연결어미가 없음. |
| | 문장 구조의 형식과 일치하는 것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등 문장에서 쓰이는 대로 쓰이는 것 | 문장에서 쓰이는 형식을 어기는 것 어간과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합성하거나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것 등이 해당. |

| | |
|---|---|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법적 구조에 부합한다. ex) 명사+명사, 관형어+체언, 어간+어미+어간+어미, 부사+용언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법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ex) 부사+명사, 어간+어간+어미 |
| 명사_명사 부사+동사..? 명사+형용사..? 부사+부사 | 부사+형용사 통사적이 아닌 것 |
| 일반적 결합 | |

2.1.3. ‘문장 구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문장 구성’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3]과 같다. 즉, 이 학습자들은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그 의미를 ‘문장 구성’과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 학습자는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일 때, 문법적일 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 학습자는 이를 문장 구성에서 흔히 통용되는 단어들끼리의 조합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 ‘문장 구성’과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 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적’의 의미는 합성어의 구성이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일 때, 문법적일 때를 말한다. ⁵ | 비통사적 합성어의 경우 일반적인 문장 구성(?)에 어긋나는 말 |
| ㉡ 관형사 어근+명사 어근이나, 부사어근+부사어근, 명사 어근+명사 어근, 동사의 활용형+명사와 같이 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흔히 통용되는 단어들끼리의 조합을 말한다. ‘나무다리’, ‘새집’ 등등이 이에 속한다. | 동사의 어간+명사, 부사+명사와 같이 흔히 통용되지 않는 품사끼리의 조합을 말한다. ‘덮밥’이 대표적인 예시. |

2.1.4.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문장 형성’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4]와 같다. 즉, 이 학습자들은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그 의미를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① 학습자가 문장을 사용하거나 단어를 결합할 때의 일반적인 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⑧ 학습자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문법 체계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기술에 그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표 4] ‘문장 형성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체언+체언 체언+관형격조사+체언 관형사+체언 용언_관형격어미+체언 등7 |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용언의 어근+체언 부사+체언 |
| ① 우리말에서 문장을 사용하거나 단어(형태소)를 결합할 때의 일반적 용법과 부합하는. (ex.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어간+어미+어간 등의 결합→통사적) | 통사적이지 않은, 즉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문장을 사용하는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ex. 부사+명사→비통사적) |
| 통사론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두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 보통 (명사+명사)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통사론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두 어근이 합쳐진 경우 (ex) 부사+명사/어간+명사 |
| ⑧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문법 체계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 |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인 문법 체계나 성식으로부터 벗어난 것 |

2.1.5. ‘일반적인 어순’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어순’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5]와 같다. 즉, 이

학습자들은 ‘통사’라는 용어에 주목해 그 의미를 ‘일반적인 어순’과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 ㉡ 학습자의 기술에서만 그 ‘일반적인 어순’의 의미가 상세화될 뿐, 다른 기술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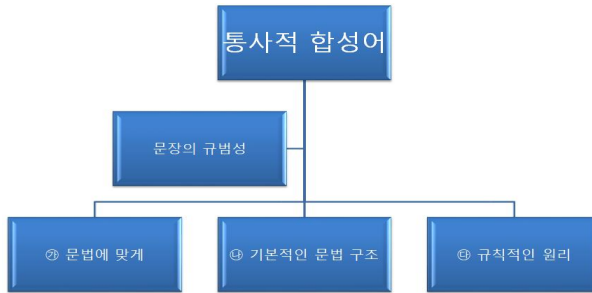
[표 5] ‘일반적인 어순’과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일반적 어순 따른 것, 허용되는 돌+다리 | 통사적 의미의 반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덮+밥 |
| 우리말의 통사적 어구 형성법(순서, 배열)과 일치함, 순서가. | 우리말의 어구 형성법(순서, 배열)과 일치하지 않음, 순서가. |
| 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 뜻을 가진 어근 어근 등의 결합이 통사적이라고 알고 있다. | ㉠ 비통사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결합을 말한다. 어간+어간, 어근+부사 등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품사, 성분의 결합으로 알고 있다. |
| 합성어의 형성 방법이 우리말 문장의 어순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 합성어의 형성 방법이 우리말 문장의 어순과 다른, 우리말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용언의 어간+어간, 어간+체언 등 |
| 합성어의 구성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과 같은 것 | 합성어의 구성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과 같지 않은 것 ex) 독서 읽다/책을 |

2.2. ‘문장의 규범성’에 주목하여 생각하는 경우

다음으로 ‘문장의 규범성’에 주목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1) ‘문법에 맞게’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2) ‘기본적인 문법 구조,

문장에서 허용되는 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 3) '규칙적인 원리'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2] '통사적 합성어' 용어에서 '문장의 규범성'에 주목한 3가지 유형

2.2.1. '문법에 맞게'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문법에 맞게’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6]과 같다. 그러나 ‘문법에 맞게’에 해당하는 개념의 이해 양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㉞의 학습자는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경우, 용언과 용언이 어미로 연결된 경우’로 구분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관형사가 명사 외의 요소와 붙거나 용언이 바로 용언에 붙는 등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㉞의 기술에서 ‘용언이 바로 용언에 붙는 경우’는 ‘용언+용언’의 결합 시 ‘어간1+어미1+어간2+어미2’가 아닌 ‘어간1+어간2+어미2’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도했을 것이지만 본인의 이 기술로는 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학습자는 ‘어간, 어미’ 용어를 적극적으로 개념 표현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㉞의 학습자는 ‘어간, 어미’ 용어를 적극적으로 개념 표현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표 6] '문법에 맞게'와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단어를 형성할 때 문법에 맞추어(우리말 구성에 알맞게) 형성하는 것. 예컨대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사는 생략이 가능함이 이미 알려져 있기에 명사+(조사)+어근 형태의 결합은 통사적임. ⁸ | 단어 형성에서 명사+조사처럼이 아니라, 그런게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도 결합하는 경우를 비통사적이라고 봄. 예를 들어 용언은 활용할 때 어미와 결합하고 어미는 생략하지 않는데, 어미를 생략하고 어간+어미+명사 등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 |
| 문법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합성어이다. 예를 들어, ㉠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경우, 용언과 용언이 어미로 연결된 경우 등이 있다. | 문법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합성어이다. ㉡ 관형사가 명사 외의 요소와 붙거나 용언이 바로 용언에 붙는 등의 경우가 있다. |
| 일반적인 국어 문장 배열에 맞는다는 의미 | 일반적인 국어 문장 배열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 |
| 문법에 맞는 형태 -명사+명사/관형사+명사 등 | 문법에 맞지 않는 형태 -어미의 생략이나 부사+명사와 같은 조합 |
| 문법적으로 맞는 합성방식으로 합성하는 것 |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합성 방식으로 합성 ex)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 부슬비 |
| 합성된 두 요소가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사용하는 결합의 방식/순서에 따라 합성된 단어 | ~의 반대 |
| 통사적이란 문장의 구성에 있어 문법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널리 쓰이는 관형사+체언의 구성의 경우 이러한 결합으로 단어가 형성될 때 통사적 합성어라고 말한다. ¹⁰ | 비통사적이란 문장의 구성에 있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사+체언과 같은 결합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 - 문법적이다. - ex)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불고기) (이슬비) | - 문법적이지 않다 - ex) 부사+명사(부슬비) |
| 통사론과 의미론의 비교에 있어서의 “통사”만 알고 있다. 형식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문법을 분석하는 게 통사론이라면, 통사적 합성어는 형식에 맞게 결합한 합성어라는 의미일 것이다. | ㉢ 형식에 맞게 결합하지 않은 합성어를 말한다. 덮밥 : 덮(은)밥 ↑ |

| | |
|---------------------------------|------------------------------------|
| 낮달 | 관형사형 어미 생략 |
| 평소에 우리가 쓰는 문법 형식에 맞게 결합된 합성어 | 평소에 우리가 쓰는 문법 형식과는 다르게 결 합된 합성어 |

2.2.2.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7]과 같다. ㉔의 학습자는 앞의 ㉔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어간, 어미’ 용어를 적극적으로 개념 표현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나, ㉔의 기술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곧 품사 관계인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기술하고 있어 ‘한국어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7]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 ㉔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품사 간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관형사+명사, 부사+(동사, 형용사) 등. 불+고기=>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이다.9 | ㉔ 한국어의 기본적 문법 구조에서 벗어나는 경우 덮+밥-> 명사 어간 덮+ -어미(없음) |
| 문장(통사)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단어(합성어)가 형성된 경우11 관형사+명사 어간+어미+명사/용언 등등 명사+명사 | 문장에서 비허용되는 방식으로 합성어가 형성된 경우 부사+명사 어간+ |

2.2.3. ‘규칙적인 원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

‘규칙적인 원리’와 연관지어 생각한 경우는 다음 [표 8]과 같다. ㉮, ㉯의 학습자 모두 ‘규칙적인 원리, 정해진 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 ‘규칙적인 원리’와 연관지어 생각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 양상

| | |
|---|--|
| ㉮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규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합성어 |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규칙에 벗어나서 만들어지는 합성어 |
| ㉯ 합성어를 만드는 정해진 기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에서 말한 합성어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3. 중등 예비 국어 교사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개념 인식 양상 특성

이상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통해 우리는 학습자의 개념 인식 양상 특성으로 1) 형태 단위와 통사 단위 용어의 혼재, 2) ‘통사성’, ‘규범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인식 미흡을 들 수 있다.

2.3.1. 형태 단위와 통사 단위 용어의 혼재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용어는 모두 형태 단위의 문법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분 원리가 ‘통사성’, ‘비통사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점 국면에서 학습자의 개념 인식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다른 문법 용어에 비해 상대

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 형성법 원리에 만들어진 복합어인데 왜 ‘통사성, 비통사성’이 용어의 주요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용어에 대한 학습자의 개념 인식 양상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통사론과의 연관성, 문장 구조, 문장 구성, 문장 형성 방식, 일반적인 어순’ 등에 주목하여 ‘통사성’에 주목하면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단어 형성 관련 문법 용어인데, 왜 여기서 ‘통사성’이 이 문법 용어의 중심된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2.3.2. ‘통사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인식 미흡

그렇다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통사성, 비통사성’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학습자는 이러한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의 항에서 학습자들이 단어 형성 관련 문법 용어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왜 ‘통사성’이 중심된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 ‘문장 구조, 배열, 일반적인 어순’ 등의 통사 구조에 주목할 뿐, ‘합성어’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며, 합성어에서 용언이 하나의 어근으로 결합할 경우 어미 생략의 문제가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어 형성 관련 문법 용어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성’이 문제되는 것은 하나의 어근이 용언일 경우 용언의 일부가 생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라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다.

3.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화 과정에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의 문제가 교과서 기술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국어과 다른 영역에 비해 교과서 의존도가 높다 할 수 있는 문법 교과서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해 어떠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교육 내용 제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자.

이를 위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기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분석 대상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목록

| 기호 | 대표 저자 | 출판 연도 | 제목 | 출판사 |
|----|-------|-------|-------------|-------|
| ㉠ | 한철우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교학사 |
| ㉡ | 윤여탁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미래엔 |
| ㉢ | 이관규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비상교과서 |
| ㉣ | 이삼형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지학사 |
| ㉤ | 이도영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창비교과서 |
| ㉥ | 박영목 | 2013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천재교과서 |

9) 2015년 9월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바, ‘문법’ 영역은 2019년 3월에 이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가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2012년 7월 고시)’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6종)가 사용되고 있다.

3.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법 교과서 기술 양상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법 교과서 기술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 10]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0]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법 교과서 기술 양상 분석을 위한 기준

| 기준 | 기준에 대한 설명 |
|------------------------------------|---|
| 1.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비통사적 합성어’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 2.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 ‘비통사적 합성어’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
| 3.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고 있는가? •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고 있는가? |

위 [표 10]의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법 교과서 기술 양상 분석 결과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 1.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 | × | △ | ○ | ○ | ○ |
| 2.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 △ | × | ○ | △ | △ | △ |
| 3.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고 있는가? | × | × | ○ | △ | △ | ○ |

먼저 ‘1.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개의 문법 교과서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문법 교과서는 ㉠, ㉡, ㉢이며, ㉣ 교과서에서는 본문이 아닌 활동의 지문 안에서 용어가 제시(이관규 외, 2013 : 84)되고 있어 ‘△’로 표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도 교과서에 따라 문법 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는 양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오현아, 2010; 오현아·조진수, 2016)

다음으로 ‘2.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교과서에서는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구분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 교과서에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과 일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크게 구분하고 ‘1) 어순이 우리말 순서에 맞는다, 2) 연결어미가 사용된다’의 세부 기준에 따른 ‘통사성’과 ‘1) 관형사형 어미 생략, 연결어미 생략, 부사가 체언 수식’과 같은 세부 기준에 따라 ‘비통사성’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 교과서 역시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통사성’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과 같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를 ‘비통사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유사하게 ㉡, ㉢ 교과서 역시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크게 구분하고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과 같은 경우를 ‘비통사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끝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고 있는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 ㉢, ㉣ 교과서에서만 해당 용례를 다루고 있다. 이 중 ㉠, ㉡ 교과서에서는 ‘어순, 연결 어미 생략 여부, 부사의 체언 수식 여부’에 따른 통사성과 비통사성의 예를 모두 다루고 있으나 ㉢, ㉣ 교과서에서는 ‘부사의 체언 수식’으로 인한 비통사성의 예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상의 문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문법 교과서 기술 양상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
- 2) ‘통사적’의 의미를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의 일치 여부’,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과 일치 여부’로 크게 구분 하는 경우 : ㉡
- 3) ‘통사적’의 의미를 ‘어순, 연결 어미 생략 여부’ 등으로 상세화한 경우 : ㉢, ㉣, ㉤
- 4) ‘통사적’의 의미를 ‘어순, 연결 어미 생략 여부’, 부사의 체언 수식 여부’ 등으로 상세화한 경우 : ㉥

즉,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김정 문법 교과서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교육 내용 기술의 범위와 깊이에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은 어떠한 교과서를 사용해 이 개념을 접했는지에 따라 그 이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2.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

그렇다면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문법 교과서 기술 시 어떠한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1) 단어 구성 차원과 문장 구성 차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 2) 체언류 중심의 용례 제시에서 벗어나 용언을 포함한 단어 형성법

용례의 확대, 3) ‘통사성, 비통사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설명력의 확보 및 인식의 확장으로 그 구체적 방안¹⁰⁾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단어 구성 차원과 문장 구성 차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 차원이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단어 형성의 원리인 합성법의 한 유형으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이며 ‘통사성, 비통사성’이 중심된 기준으로 작용하는 용례는 용언이 하나의 어근으로 결합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어 형성’ 관련한 용례가 체언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용언을 포함한 단어 형성의 사례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체언류 중심의 용례 제시에서 벗어나 용언을 포함한 단어 형성법 용례의 확대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 교과서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만 제시될 뿐 해당 용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 교과서에서는 합성어를 품사에 따라 구분하였을 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용어와 개념 역시 제시되지 않

10)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법 용어 개념 인식의 수월 정도에 따라 문법 용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문법 용어의 투명도’ 개념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높은 문법 용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로 기존 문법 용어의 구분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의 대표적 사례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문법 용어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학습자의 문법 용어 개념 인식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의 모색 과정에서 용어 자체를 재고하는 방식의 접근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문법 용어 자체가 그 개념을 표상하기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법 교과서 기술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의 개념 인식의 혼란은 교과서 기술의 문제라는 논증 과정은 본고 3.1. 참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문법 용어의 개념 인식의 어려움을 새로운 문법 용어의 제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문법 용어 자체가 그 개념을 표상하기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수정 가능한 부분임을 밝혀 둔다.

고 있다. ㉔, ㉕, ㉖ 교과서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용어와 개념, 용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 중 ‘부사+체언’류의 용례는 다루고 있지 않다. ㉗ 교과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용어와 개념, 용례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나, 설명 텍스트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활동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점을 이루고 있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라 할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용어에 대해 충분한 용례를 바탕으로 문법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사성, 비통사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설명력의 확보 및 인식의 확장 차원이다. 체언 중심이 아닌 용언을 포함한 합성법의 다양한 용례를 접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하나가 용언인 경우 ‘통사성’이 주요한 합성어 구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단어 결합 방식 역시 ‘비통사성’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음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4. 나오며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은 무엇인가? 용어상에 등장하는 통사적 합성어의 ‘통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의 정의에 대해 학습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어 차원에서 합성어를 분류할 때 왜 ‘통사성’이 등장하는 것인지 학습자들은 과연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에 대해 개념 설명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문법 용어의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할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법 용어의 투명도’ 문제를 문법 용어 일반에 확장시켜 논의를 넓혀가는 시론으로서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여기서 ‘문법 용어의 투명도’란 ‘투명도’ 고유의 정의처럼 ‘학습자가 문법 용어를 접하였을 때, 그 문법 용어의 개념이 비교적 미루어 짐작 가능하여 수월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문법 용어의 투명도’란 학습자의 문법 용어 개념 인식 양상에 따라 문법 용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높은 문법 용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사범대 국어교육과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 인식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 6종에서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학교 문법 용어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 설명 제고 방안을 모색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은 문법 용어들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개별 문법 용어별로 학습자들의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남옥 · 김상현(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 추출 방법과 한국어 어휘 목록 개발 연구-한자 형태소의 조어력과 의미투명도를 기준으로,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제 220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7-128. Kang, N. W. & Kim. S. H.(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etter Extraction Method and Korean Vocabulary List for Korean Learners - Based on the coercive force and semantic transparency of Hanja morphem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Association 220th National Conference, 107-128.
- 고영근 · 구본관(2008, 2018), <우리말 문법론>, 서울 : 집문당. Ko, Y. G. & B. K. Koo (2008, 2018), *Urimal Munbeopron(The Korean Grammar)*, Seoul : Jipmoon.
- 김서형(2013),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67, 281-302. Kim, S. H. (2013), Extension of Meaning and Category of Idiomatic Expression, *Eomunnonjib* 67, 281-302.
- 김순호 · 정경희(2015), 초등 저학년 읽기학습부진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언어치료연구>(한국언어치료학회) 24-2, 35-47. Kim, S. H. & K. H. Jung (2015), Morph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bilities for Ear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Poor Reading Skill,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4-2, 35-47.
- 김왕규(2004), 한자 자훈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30, 199-222. Kim, W. G. (2004), Corelation Rate between Understanding Chinese Character and Understanding Chinese Word, *Cheonglam-eomungyooyug* 30, 199-222.
- 김정남(2007), 의미 투명성과 관련한 국어의 제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한국어어의미학회) 22, 1-23. Kim. J. N. (2007), About Several Phenomena of Korean Language Concerning with the Transparency, *Korean Semantics* 22, 1-23.
- 김현진(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 <한국어와 문화>(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7, 99-129. Kim, H. J. (2015), A Study on

- Educational Idiomatic Expressions of Korean language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7, 99-129.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국어학회) 51, 89-113.
- Noh, M. H. (2008), The Relatedness between Constituents and Meaning of Sino-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51, 89-113.
- 려춘연(2011), 조선어문법련어의 의미투명성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73, 5-10. Ryeo, C. Y. (2011), Transparency of meaning of Choseon-eo grammar collocation, *Jung-gugjoseon-eomunm* 173, 5-10.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15(1), 207-233. Moon, G. H. (1998), The Education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 in a Foreign Language,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15(1), 207-233.
- 민현식(2005a),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한글한자문화>(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76, 82-87. Min, H. S. (2005a),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nja and Chinese character analysis study, *Hangeulhanjamunbwa* 76, 82-87.
- 민현식(2005b),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2), <한글한자문화>(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77, 80-85. Min, H. S.(2005b),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nja and Chinese character analysis study, *Hangeulhanjamunbwa* 77, 80-85.
- 민현식(2006a),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3), <한글한자문화>(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78, 78-83. Min, H. S. (2005b),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nja and Chinese character analysis study, *Hangeulhanjamunbwa* 78, 78-83.
- 민현식(2006b),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3), <한글한자문화>(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79, 74-79. Min, H. S. (2005b),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nja and Chinese character analysis study, *Hangeulhanjamunbwa* 79, 74-79.
- 박삿별(2018),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 투명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중국어권 화자와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44, 441-467. Park, S. B.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 Transparency in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44, 441-467. doi : 10.20988/lfp.2018.44..441

- 박영목 · 친경록 · 이은경 · 박의용 · 이현진(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친제교육.
Park, Y. M., K. R. Chun, E. K. Lee, U. Y. Park, & H. J. Lee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Chunjae Education.
- 박재연(2012), 고유명 의미의 지시와 내포, <한국어 의미학>(한국어 의미학회) 37,
185-213. Bak, J. Y. (2012), Denotation and Connotation of Proper
Names, *Korean Semantics* 37, 185-213.
- 박진희 · 민현식(2018), 남북한 외래어 순화에 나타난 의미 표상 방식의 고찰, <돈
암어문학>(돈암어문학회) 34, 221-253. Bak, J. H. & H. S. Min
(2018), A Study on the Semantic Representation Method in the refining
words in North and South Korea, *don-am-eomunhag* 34, 221-253.
- 배성봉 · 이광오 · 박태진(2016), 의미 투명성이 단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인지과
학>(한국인지과학회) 27(3), 421-439. Bae, S. B., K. O. Lee, & T. J.
Park (2016), Semantic transparency effects in the learning of new word
s : An ERP study,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7(3), 421-439.
<http://dx.doi.org/10.19066/cogsci.2016.27.3.004>
- 배성봉 · 이광오 · 박혜원(2012), 한자어 인지와 학습에서 의미투명성의 효과, <교육
심리연구>(한국교육심리학회) 26(2), 607-620. Bae, S. B., K. O. Lee,
& H. W. Park (2012), Semantic Transparency Effects in the Recognition
and Learning of Sino-Korean Words, *Korean Education Psychology*
26(2), 607-620.
- 서경숙(2017), 속어 학습과 의미 투명도의 상관성 연구, <돈암어문학>(돈암어문학
회) 31, 285-316. Suh, K. S.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Idioms and Semantic Transparency for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Donam language and literature* 31, 285-316.
- 송영빈(2009), 조어적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의미투명도, <일본학보>(한국일본학
회) 80, 13-25. Song, Y. B. (2009), The semantic transparency of the
Word-formation, *Ilbonhagbo* 80, 13-25.
- 송현주 · 김재옥(2016), 읽기이해부진 중학생의 관용표현 이해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1(2), 217-229. Song,
H. J. & J. O. Kim (2016), Idiom Comprehen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y,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1(2), 217-229.
- 신후남(2015), 관용어 이해력과 언어문제해결력 간 관계 연구, <언어치료연구>(한
국언어치료학회), 24(3), 39-49. Shin, H. N. (2015), A Study of the

- Correlation Between Idiom Comprehension and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4(3_), 39-49.
- 신희삼(2015), 국어 어휘에서 나타나는 의미 투명성의 양상,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문화회) 94, 69-91. Shin, H. S. (2015), The Meaning Transparency in Korean Vocabulary, *Hangug-eon-eomunbag* 94, 69-91.
- 오진영 · 이은주(2014),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15(4), 417-438. Oh, J. Y. & E. J. Lee (2014), Idiom Understanding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Tengsugyoyugjeoneol : Illogwa Silcheon* 15(4), 417-438.
- 오현아(2010), 이야기를 활용한 품사 단위 내용 구성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133, 145-181. Oh, H. A. (2010),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ntents of the Parts-of-Speech Unit Utilizing Stor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133, 145-181.
- 오현아(2016a), 사용자 중심의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재구조화 방안 모색, <어문학보>(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36, 27-52. Oh, H. A. (2016), Seek for ways to Restructuring the content of grammar education for user-centric grammar skills,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36, 27-52.
- 오현아(2016b),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품사 설정과 분류 문제 연구 (1),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75, 31-77. Oh, H. A. (2016b),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in Secondary Grammar Textbooks Authorized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1),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75, 31-77.
- 오현아(2016c), 통사구조 중심의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 관련 문법 교육 내용 재구조화 방안 모색,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155, 1-28. Oh, H. A. (2016), Exploration of a Measure for the Restructuring of Grammar Education Cont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Places of Predicates’ on the Basis of Syntactic Structures, *Korean Language Education* 155, 1-28.
- 오현아(2017), 충분한 문법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중등 예비 국어 교사의 문법 개념화 양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문법교육>(한국문법교육학회) 29, 29-63. Oh, H. A. (2016), An Analytic Study on Grammar Conceptualization Aspect of Secondary Pre 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with Insufficient Grammar Learning Experience, *Grammar education* 29, 29-63. doi : 10.21850/kge.2017.29..29

- 오현아·조진수(2016), 문법 교과서의 언어 단위별 교육 내용 구성과 범위 검토 - 단어 단위에서 품사 분류 문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109, 219-254. Oh, H. A. & J. J. Jo (2016), A Review on Constitution and Range of Grammar Education Content in Linguistic Units for the Grammar Textbooks - Focusing on Issues of Parts of Speech Classification, *Korean Education* 109, 219-254. doi : 10.15734/koed..109.201612.219
- 오현아·조진수·박민신·강효경·박진희·최선희(2018), 학령기 학습자의 문법 개념화 과정 기반의 학습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한국어 문법 능력 진단·학습·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론,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115, 31-80. Oh, H. A., J. Jo, M. Park, H. Kang, J. Bak, & S. Choi (2018), Development of learner date based an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grammar ability diagnosis, learning and evaluation program based on analysis of learner's grammar conceptualization process, *Korean Education* 115, 31-80. doi : 10.15734/koed..115.201806.31
- 윤여탁·구본관·정정순·김기훈·장성남·소정섭·신효은·최혜민·김정은·송소라(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미래엔. Yoon, Y. T., B. K. Koo, J. J. Jeong, K. H. Kim, S. N. Jang, J. S. So, H. E. Shin, H. M. Choi, K. E. Kim, & S. R. Song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Mirae-N.
- 이건범(2017), 초등 교과서 속 한자어 교육에 한자 지식이 미치는 영향 분석, <한글>(한글학회) 315, 129-174. Lee, K. B. (2017), An Analysis How Much the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Influence to Understand Sino-Korean Words in the Elementary-School Textbooks, *Hangeul* 315, 129-174. doi : 10.22557/HG.2017.03.315.129
- 이관규·유보라·박경희·박정진·신명선·신희철·하성욱(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비상교육. Lee, K. K., B. R. Ryu, K. H. Park, J. J. Park, M. S. Shin, H. C. Shin, & S. W. Ha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Visang Education.
- 이도영·김혜정·문숙영·이숙형·장창중·최형용·한성우(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창비. Lee, D. Y., H. J. Kim, S. Y. Moon, S. H. Lee, C. J. Jang, H. Y. Choi, & S. W. Han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Changbi.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정재찬·이성영·최지현·양정호·권순각·조형주(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지학사. Lee, S. Y., J. S. Kim, C. W.

- Kim, J. C. Jeong, S. Y. Lee, J. H. Choi, J. H. Yang, S. K. Kwon, & H. J. Cho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Jihak.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 월인. Lee, S. W.(2012), *hangug-eo munbeoblon-ui gaenyeom-eo yeongu*, Seoul : Wolin.
- 이은화(2015), 어휘의 의미투명도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국어언어연구>(한국중국어언어학회) 61, 323-347.
- Lee, E. H.(2015), Efficacy of Lexical Transparency in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Chinese Vocabulary,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61, 323-347.
- 이태연(2004), 복합명사의 어휘판단에 미치는 의미 투명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인지 및 생물>(한국심리학회) 16(1), 45-60. Lee, T. Y.(2004), The effect of semantic transparency on lexical decisions of compound nouns,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16(1), 45-60.
- 장광균(1993), 조선어단어의미의 투명도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66, 17-20. Jang, G. G. (1993), A Study on the Transparency of Meaning of Choseon-eo Words, *Jung-gugjoseon-eomunm* 66, 17-20.
- 차은영 · 김재옥(2017), 청각장애 대학생의 관용표현 이해능력, <언어치료연구>(한국언어치료학회) 26(3), 153-166. Cha, E. Y. & J. O. Kim (2017), The Ability of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o Understand Idiomatic Expression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6(3), 153-166.
- 한철우 · 성낙수 · 고재현 · 곽현주 · 김미희 · 오유경 · 윤국한 · 이재형(2013), <독서와 문법>, 서울 : 교학사. Han, C. W., N. S. Seong, J. H. Ko, H. J. Kwak, M. H. Kim, Y. K. Oh, K. H. Yoon, & J. H. Lee (2014), *Reading and Grammar*, Seoul : Kyohak.
- 허 철(2016), [현대국어사용빈도 조사] 선정 고빈도 이상 상용 한자어의 투명도 조사 연구, <한문교육연구>(한국한문교육학회) 46, 399-421. Heo, C.(2016), A study of analysis words meaning, which select "frequent use in modern Korean Research" above high frequency area, by Han-character's Korean meaning, *The educational Society of Korean Chinese Classics* 46, 399-421.
- 현혜숙 · 김영태 · 임동선(2011),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관용어 유형 및 과제제시 방법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특수교육학연구>(한국특수교육학회)

46(1), 173-195. Hyun, H. S., Y. T. Kim, & D. S. Lim D. S. (2011), Comparison of Idiom Comprehension Ability of School-Aged Poor Reading Comprehenders and Typically Developing Peers : the Role of Context, Transparency and Familiarity,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46(1), 173-195.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parency Problem of School Grammar Terminology

—Focusing on ‘syntactic compound words’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s’—

Oh, Hyeon ah

Purpose : In this paper, the level of comprehension of learners about ‘syntactic compound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s’ which can be relatively low in ‘transparency of grammatical terms’, <Reading and Grammar> as a high school elective course for ‘syntactic compound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s’. We tried to grasp how the textbooks deal with grammatical terms. **Methods :** In Section 2, we review the perceptions of ‘syntactic compound words’ and ‘non - syntactic compound words’ for teacher education and pre - service teachers in chapter 2. In chapter 3, we review the reading and grammar test textbooks Based on the technical aspects of ‘syntactic and non - syntactic compound words’ in the textbooks, we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xplanation of ‘syntactic compound word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grammar terms. **Results :** In Chapter 2, the learner’s concept recognition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compound word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 are clarified. In chapter 3, the limit of technical contents of related grammar textbook is compared and analyzed, syntactic compound word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 And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ir explanation. **Conclusion :** Through these attempts, we are expecting to find a way to promote understanding of grammatical terms in terms of individual grammatical terms.

Key words : Grammar education, school grammar, grammar terminology, conceptual word, transparency, syntactic·non-syntactic compound word, syntacticity

오현아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 2호관 213호 국어교육과 사무실 /
haoh@kangwon.ac.kr

접수일자 : 2019. 1. 23. / 심사일자 : 2019. 3. 4. / 게재 확정 일자 : 2019. 3. 10.